



부안남초, '이미례 동화작가와 만남'의 시간 가져

부안남초등학교(교장 정한상)는 16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행양이야·메임이야, 바다를 담은 그릇' 등 10여 권의 책을 쓰고 교과서에도 작품이 수록 되어있는 '이미례 동화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며 밝혔다.

부안남초는 전교생 온책 읽기 연계수업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글의 실제 작자를 초대해 작품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교육과정 설계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 되어지고 있다.

부안남초는 2022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계절별에 맞게 학습주제 형식의 틀 속에 '함께 꿈꾸는 계절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은 4계절 축제 중 '열매 맺는 가을 축제'를 기획을 통해 온책 읽기 수업과 실제 동화작가를 초대하여 학생들이 읽은 내용중에 인상 깊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 작가 이야기를 나누고 읽은 책의 내용으로 '독서골든벨' 까지 진행했다는 것

3학년 오태선 어린이는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나요?라는 작가에게 질문을 하고 얼굴을 보며 직접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 좋았어요"라고 전했다.

정한상 교장은 "청소년 시기에 만난 좋은 책은 자신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양식이 되며 올해 두 번째로 만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책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장수초 총동문회, 개교 112주년 기념 행사 개최

장수초등학교 개교 112주년을 기념하는 총동문회가 지난 14일 금강의 첫물인 뜬봉샘 생태길 탐방을 시작으로 장수 한누리전당 이와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동문들은 서로 반기운 안부 인사와 그간 소회를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황성주 교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수초등학교에서 재직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좀더 나은 교육환경과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장수초등학교 동문회가 좋은 전통을 이어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되어 주길 바란다"면서 "군민과 동문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꿔가겠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기수별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을 통해 등식으로 돌아가 흥겨운 시간을 즐기며 선·후배 간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재학생 밴드동아리의 재능공연과 초대가수 축하공연을 뒤로 한 동문들은 내년을 기약, 이어운 석별의 정을 나눴다.

신병호 회장은 "우리 함께 가자'를 지표로 동문회가 모교와 지역 발전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선관위, 전직원 청렴실천 서약식 개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직원들은 국민들의 청렴 요구에 부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 부당이익 추구 금지, 청탁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서약하고 낭독했다.

서약식 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적극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김영현 사무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기강 조성 등 내부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며 "직원 모두가 엄정종립의 자세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제 우리의 이웃"

진안군, 농가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 열어

진안군은 지난 13일 저녁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주 등이 함께 화합하며 의지를 다지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한마음대회는 영농활동의 큰 힘이 되어 준



히 일한 근로자 10명(베트남명, 필리핀)을 선별해 생활필수품을 지급했다.

가념식 이후에는 노래자랑, 장기자랑, 전통놀이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진안 흑돼지 비빔밥을 준비해 농가주와 근로자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내국인의 농업기피현상으로 매년 빈번적으로 심각한 농촌일손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현실을 해소하고자 진안군은 필리핀 귀리노주, 이시발리주와 MOU 체결을 통한 농가 배치형과 필리핀 마닐라스와 MOU 체결을 통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46농가 155명, 2023년도에는 128농가에 36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영농활동을 돋고 있다.

행사에서는 진안군과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센터장 박시진) 주관으로 폐쇄적 근로환경 조성과 이탈자 방지를 위해 노력한 4명 농가주(진안읍 백제월 주천면 배명오, 동항면 박성호, 미령면 김동환 농가)를 우수농가로 선정해 진안군수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하고 열심



남원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지회장 곽철곤)는 16일, 지회 2층 회의실에서 죄경식 시장, 전평기 시의회 의장, 읍면동 분회장 등 30명과 수상자 26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남원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초대가수 모승로(마닐리) 장구팀(형남석, 김소연, 전체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모범 어르신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시장에서는 보궐면 소인십씨가 모범노인으로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신내면 박완국씨가 모범노인, 이백면 소경선이 유공 공무원으로 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봉동면 외 2명에게는 지회장 공로패가, 이영진 외 19명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르신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현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전통 목공예 체험… 2회 걸쳐 지역민 대상 실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재가공지원센터(센터장 오승원)는 최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목공예 체험 행사를 실시, 호응을 얻었다.

16일 목재가공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목공예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장수군·무주군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의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목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목공예 체험 행사는 지난 9월 16일 8가족 33명을 대상으로 실시, 10월 14일에는 8가족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가족들은 전통 찌맞춤 방식을 이용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반장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아이들은 목재가공센터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망치질과 사포질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정동성 기자

임실군, 제5차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임실군이 지난 14일 청소년문화의 집 광장에서 지역 청소년 및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문화에 대한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제5차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니 함께 DREAM 청소년 한마당' 이란 주제로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적 감수성 향상과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소년문화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진행한 1부에서는 '쿠키&음식 만들기'로 또래상담자들이 음식을 만들어 주위 친구들과 학부모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부 체험활동은 청소년참여기구(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등이 참여하여 또래의 청소년들과 함께했다.



다트풀리기, 업사이클링, 밤송이끼기 등 7종 체험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의 학도그 나눔과 소방관, 공예가,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 금산면 학수재 영락회, 호국영령 추모제 가져

김제시 금산면 학수재 영락회(회장 오창오)는 지난 15일 김제시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제는 김제군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 대접주인 김덕명 장군과 원평장터에서 기미집단민세운동을 주도해 옥고를 치른 9명의 애국지사들, 광복군 제1지대장으로 활약한 이종희 장군 6.25 전쟁 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한 안영권 하사 등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들의 우국충정을 추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편 학수재 영락회 회원들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김제군 출신 애국지사들의 위폐를 모신 위령각과 이종희 장군 추모비를 보호·관리하여 매년 10월 15일 학수재 위령각에서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도통동,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건강교육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3일, 센터 3층 강당에서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 75명을 대상으로 건강교育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노년기 건강과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노년기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속의 건강에 대한 정보와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기족센터(센터장 주영숙)와 함께, 순천대학교 김종범 교수를 초빙해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과 건강 문제(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사 방법 및 운동법을 소개하는 등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도통동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연 2회 이상 근로활동 및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의산시남부권노인복지관, 노인인권 지키기 앞장

의산시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16일 동신동 아마트 사거리에서 '노인인식개선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관 내 어르신 자조모임에서 기획하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 10여명이 함께 참여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진 전시와 함께 인권 관련 흥보물을 배포했다.

또 노인 인식 관련 설문조사와 스티커 붙이기 등 활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노인인권 보호 필요성을 알렸다.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개선과 인권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모님을 비롯하여 이웃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자조모임운영, 노인학대예방교육, 지역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의산=이재춘 기자